3년내 농어촌 구급 사각지대 없앤다

소방청, 2019년 업무계획…대형재난 · 인명피해 저감 방점
소방시설 기준에 이용자 특성 반영 '인명안전코드' 개발
소방車 교차로 우선신호 전국 확대…비상구 폐쇄때 처벌↑

소방당국이 오는 2022년까지 농어촌 지역의 구급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또 소방·방화시설 설치 기준에 이용자와 수용 인원의 특성을 반영하는 '인명안전코드'를 개발하고,긴급출동 소방차량의 교차로 통행 시간을 단축시키는 시스템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소방청은 17일 이 같은 내용의 '2019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업무계획은 대형재난을 막고 인명 피해를 줄이는 데 방점이 찍혔다. 이를 위해 안전 취약계층 보호와 119서비스의 품질 향상에 힘쓴다.

올해부터 3년 내 119구급대가 없는 농어촌 지역 95곳에 매년 24개대 178명의 구급대원을 배치한다. 구급차 도착 전 119안전센터나 지역대의 펌뷸런스 운영도 늘린다.

10만 여 취약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추가 지원하고, 소방시설 공동구매와 설치·상담을 지원하는 원스톱(One-Stop)지원센터 330곳을 상시 운영한다.

응급상황 발생 시 119로 신고하면 소방청에 사전 등록된 신고자(환자)의 병력과 위치를 파악해 신속한 현장 응급처치와 병원 이송을 가능케하는 '119안심콜 서비스'의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으로까지 확대한다.

민관 응급헬기 출동·이송체계를 119로 일원화하고,119구급대원이 급성 심근경색 환자의 심전도를 측정하거나 응급 분만한 아이의 탯줄을 자를 수 있도록 응급처치 범위를 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서울·부산·광주·인천·대구·경북·제주 등 7개 상황실에서 구급대·신고자 3자 간 휴대전화 영상통화로 응급처치를 지도하는 사업도 전국으로 확대한다.

또 대형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노후 고시원 등 다중이용업소 2374곳에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를 소급 설치하고, 1만1892곳에 대한 화재안전특별조사도 실시한다. 소관 부처가 없는 방 탈출카페 등 화재위험 신종업소는 화재위험평가결과에 따라 다중이용업소로 새로 지정한다.

11년 주기로 정기검사를 하는 대량 위험물 저장시설에 대해 4년 주기의 추가점검을 강제하고, 길이와 관계없이 사람이 드나들 수 있는 모든 사업용 전력·통신구를 지하구에 포함시켜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에너지저장장치(ESS) 1490곳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새롭게 포함시킨다.

소방당국은 소방시설 설치 기준에 이용자와 수용 인원의 특성을 적용하는 미국의 '인명안전코드'를 도입키로 하고,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도록 개발한다. 화재 위험 요인에 건축·전기·가스 등도 포함시킨 '한국형 화재안전종합대책(KFCD)'도 만든다.

안전시설 관리 강화를 위해 인명피해와 직결되는 비상구 폐쇄 행위의 처벌 수위는 현행 최고 300만원 과태료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인다.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의무 대상도 영업주와 모든 종업원으로 하도록 법령을 손본다.

주민 밀착형 재난 체험교육을 위해 소방안전체험관을 현행 7곳에서 14곳으로 늘리고, 이동안전체험차량을 연내 7대 보강한다.

경기 의왕시에서 시범운영 중인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은 시·도별 우선순위를 정해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이 시스템은 긴급출동 소방차가 교차로에 진입하면 기존 신호를 중단하고 소방차의 진행 방향에 따라 직진 또는 좌회전 신호를 조정해 재난 현장에 신속히 도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현재 출동시간의 20·60% 가량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오는 2022년까지 '소방관 2만명 증원 계획'에 따라 올해 3915명을 새로 뽑는다. 현장지휘관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중앙소방학교에 실습 중심의 특별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현장지휘관 능력인증 자격제도 도입한다.

정문호 소방청장은 지난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개청 3년차를 맞이한 올해는 국민안전을 최고의 가치로 삼아 신속·정확하고 역동적인 현장 대응활동을 위해 소방의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수선화가 전하는 봄 이야기 화창한 봄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17일 오후 경남 거제시 장승포 해안일주도로에 심겨진 수선화가 노란 꽃망울을 터뜨려 봄소식을 전하고 있다.

환경부, 오늘부터 전국 430곳서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한 달간 단속…경유 · 휘발유 · LPG 차량 대상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도심 430여 곳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단속 기간은 18일부터 한 달간이다.

각 시도는 시내·외 버스 차고지와 학원가, 물류센터, 항만·공항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경유 차량을 정차시킨 뒤 측정 장비를 활용해 매연 배출 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검사한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수도권 9곳과 대전·울산 각 1곳에서 주행 중인 휘발유와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의 배출가스를 정차 없이 원격측정기를 이용해 단속한다. 이중 2곳에서는 운전자가 본인 차량의 배출가스 농도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측정값을 전광 표시판에 알려준다.

운전자는 배출가스 점검에 협조해야 한다.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방해하면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해야 한다. 미이행 시 최장 10일간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되며,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김영민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미세먼지 줄이기는 국민 모두가 참여해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며 "불편하더라도 배출가스 단속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시스

印尼 홍수 사망자 증가 최소 63명 사망

인도네시아 동쪽 끝 파푸아주에서 수일 간 계속된 폭우로 16일 밤 큰 홍수가 발생해 최소 63명이 사망했다고 현지 재난관리국의 한 관리가 17일 밝혔다.

파푸아주 자야푸라 구역에서 지난 며칠 간 계속된 폭우로 인한 산사태와 이로 인한 홍수로 또 59명이 부상하고 수십명이 실종됐다고 코리 심볼론 파푸아주 재난관리국 국장은 말했다.

심볼론 국장은 16일 오후 6시(현지시간) 홍수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홍수로 많은 집들과 건물, 교량 등 인프라가 파괴됐으며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집을 잃고 임시 보호소로 대피했다.

수토포루르워 누그로호 인도네시아 재난관리국 대변인은 이재민들을 위한 구호품이 지원되고 있다며 공동 사령부가 곧 설치될 것이라고 말했다.

난민부터 아기까지…뉴질랜드 테러 희생자들

17일 뉴질랜드 경찰 당국은 크라이스트처치의 이슬람 사원 2곳에서 발생한 총격 테러의 사망자 수가 50명으로 늘어났다고 발표했다. 당국이 희생자들의 정보를 공개하며 이들에 대한 애도도 이어지고 있다.

CNN에 따르면 희생자들 중에는 시리아 난민부터, 파키스탄 국적의 교수, 3살배기 아기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한 칼리드 무스타파는 2018년 뉴질랜드에 입국한 시리아 난민이다. 시리아연맹뉴질랜드 측은 페이스북에 성명을 내고 "그는 2018년 전쟁을 피해 안전이 보장된 천국인 뉴질랜드로 부인, 세 가족과 함께 왔다"고 밝혔다.

총격 테러가 발생한 15일 그는 가족들과 함께 기도를 위해 사원을 찾았다. 이번 테러로 무스타파의 14살 아들 함자 역시 사망했으며, 13살 자이드는 중상을 입고 입원했다. 그의 가족들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거부하고 있다.

파키스탄 외무부는 크라이스트처치 테러로 자국민 6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 중에는 파키스탄 국적 교수 나임 라시드(50)와 그의 아들 탈라 라시드(21)가 포함됐다.

라시드 교수는 뉴질랜드에서 7년을 거주한 학자다. 그의 아들은 뉴질랜드에서 학교를 다니는 평범한 학생이라고 지인들은 말했다.

사망한 알리 엘마다니는 아내와 함께 1998년 아랍에미리트(UAE)를 떠나 뉴질랜드로 이민을 왔다. 그의 딸은 뉴질랜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에게 뉴질랜드는 고향이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3살 무카드 이브라힘은 함께 사원을 찾은 아버지와 형을 잃고 혼란 속에서 총격을 당했다. 뉴질랜드 헤럴드에 따르면 이 가족은 크라이스트처치 병원 곳곳을 헤맸지만 그를 찾을 수 없었다.

파리 노란조끼 시위 다시 격화…은행 등 방화

프랑스 수도 파리에서 16일(현지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에 반대하는 노란 조끼 항의 시위가 18주말 연속 열려 생명을 위협하는 대규모 방화가 벌어지고 경찰과 격렬한 충돌을 빚었다. 샹제리제 거리 상공에 짙은 연기가 가득 찬 가운데 건물 화재로 모자가 거의 생명을 잃을 뻔 했다가 극적으로 구출됐다.

샹제리제 거리는 몇시간 동안이나 시위대의 방화로 치솟은 연기와 경찰이 발사한 최루가스로 시야가 가리워진 가운데 돌팽이들이 난무했다.

지난 수주 간 수그러드는 것처럼 보였던 노란조끼 시위대의 폭력 시위는 이날 다시 격화됐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두 달 간 국민과의 대화를 이어왔지만 시위대는 자신들의 경제 정의 요구가 충족되지 못했다고 항의했다.

진압 경찰은 최루가스와 물대포 발사로 시위대를 제압하려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샹제리제 거리 인근의 한 7층 건물에 입주한 은행이 방화 공격을 받아 건물 대부분이 불에 탄 가운데 불 속에 갇혔던 모자가 소방관에 의해 극적으로 생명을 구했다. 소방관 2명을 포함해 건물 안에 있던 11명이 부상을 당했다.

주말마다 계속되는 프랑스의 노란조끼 시위는 지난해 1월17일 시작돼 4달이 됐으며 마크롱 대통령이 이에 대응해 시작한 국민과의 대화는 2달간에 걸쳐 생활수준 하락 및 임금 상승 정체, 높은 실업률 등에 대해 토론을 마쳤다.

시위대는 그러나 마크롱 대통령의 대화 시도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